

케빈 E. 프레데릭 박사, 발덴시아인, 강의 4, 급진적 구별, 빈곤의 역할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급진적 구별, 빈곤의 역할입니다.

설교 제목은 급진적 구별이고, 이 설교에서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32-37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의 온 무리는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공동 소유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궁핍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팔린 것의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에 올려놓았고,
필요한 사람마다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기독교 운동의
첫 수십 년 동안, 소수의 신자들은 모든 소유물과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겸손한 정신을 갖는 공동 생활 방식을 옹호함으로써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패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사도행전의 성경 저자는 땅과 집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과 자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자원을 제공했고 사도들은 자신의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합니다.

초기 교회의 이러한 공동체적 반응은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예상했던 시기에 그리스도교 제자도에 대한 부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수십 년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공유 자원과 공동 생활의 원칙에 대한 열렬한 고수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에서 느슨해졌습니다. 11세기에 이르러 교회 내의 표준 관행으로 인해 교회는 부패하고 지도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교회 관리들의 권위는 교회 내부와 일반 대중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통치 기간인 1073년에서 1085년 사이에 이러한 관행은 면밀히 조사되었고, 그레고리오 개혁이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교회 개혁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교회 지도자 임명의 두 가지 주요 관행으로, 세속 지도자가 지도자를 임명하는 평신도 서임권과 교회 직책을 매수하는 성직 매매 관행이 있습니다.

성직 매매는 또한 교회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돈을 지불한 가신에게 토지를 부여하는 데 사용된 관행이었습니다. 평신도 서임권과 성직 매매는 모두 교회 위계의 도덕적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효율성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 사회의 나머지는 교회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교회 지도자를 목자로 묘사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교황은 평신도 서임권과 성직매매를 모두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금지했습니다. 교회의 성직자 직무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레고리오 개혁은 모든 교회 지도자가 독신이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성직자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교황 그레고리는 평신도에게 사제와 주교의 부도덕한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널리 퍼진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성직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성직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직을 받은 사람이 행한 모든 성례는 무효이며, 같은 성직자를 재성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황 그레고리는 부도덕한 교회 지도자들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관행을 장려했는데, 이는 로마 교회를 괴롭혀서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세속 세계의 눈에 그 권위를 마비시킬 것이었다. 13세기 초에 월도의 많은 추종자들은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난 사제와 주교가 베푸는 성례를 거부했다.

이 관행은 도나티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개혁은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으며, 이는 서기 12세기 내내 기세를 얻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육받은 점점 더 많은 수의 성경 학자들도 성경적, 윤리적 근거로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교회의 관행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난받은 것은 가톨릭 위계가 채택한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대다수 인구의 빈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 고난을 겪고 죽으신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와 탐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구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겪는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2세기 초, 피터 아벨라르는 교회 내 학술적 토론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가톨릭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벨라르와 다른 성서 학자들이 밝힌 교회의 부 축적과 지도자들의 탐식적인 삶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발도파 운동 내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레온과 그들의 전도 여행자들은 20년째 되는 해에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진 또 다른 변칙적인 기독교 집단을 만났는데, 이 집단은 공동체 생활과 평신도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톨릭 위계는 12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 술 취함,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방종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세기 내내 서유럽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관행에 반대하는 여러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반대 운동에는 Petrobruscians, Henrykins, Humiliati, Arnoldisti, Cathars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대 운동은 각각 빈곤 서약을 채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삶의 패턴으로 삼았습니다.

이 그룹들 중, Arnoldisti는 13세기에 Waldo와 Leon의 Poor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Arnoldist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의 작은 롬바르드 공동체인 브레시아 출신의 로마 가톨릭 학자이자 수도사인 Arnold가 믿는 사람의 추종자였습니다. Arnold는 1090년에 태어났고 위대한 학자 Peter Abelard의 학생이었습니다.

아벨라르가 로마 교회의 축적된 부와 주교와 사제들이 보여준 방탕한 부도덕함을 비판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벨라르와 달리 아놀드는 단순히 학문적인 방식으로 신학적 신념을 논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마음과 정신에서 진실을 느꼈고,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화하며 민주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삶을 실천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놀드는 아벨라르와 결별하여 1130년대 초 브레시아로 돌아와 롬바르디아 전역의 도시 지역에서 20년 이상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합 메시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시켰는데, 특히 마태복음 25:31~46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방문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2:44~47과 사도행전 4:32~37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와 자원을 공유하는 데 헌신하는 것을 묘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공동체적 삶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아놀드는 사도행전에 계시된 다른 도덕적 개혁들 중에서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들 중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는 공유 자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를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놀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국어로 복음 메시지를 제공했습니다. 아놀드의 설교는 로마 교회와 불가타를 성경의 유일한 교회 공인 번역본으로 사용하려는 로마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놀드는 교회의 호사스러운 위계로 과시된 부의 축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교회에 교회 토지를 도시 국가에 넘겨줄 것을 소리 높여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재산을 소유한 성직자, 휘장과 왕립 토지 보조금을 소지한 주교, 소유물을 소유한 수도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큰 위협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놀드는 이단자이자 교회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1155년 로마에서 화형당했는데, 이는 월도가 목회를 시작하기 거의 20년 전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와 그를 따른 공동체는 롬바르디아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아놀드파는 활기차지만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고, 30년 후 월도가 순회 여행을 통해 롬바르디아 지역으로 왔을 때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184년 이전에 발데스의 교회 위계 문제는 목회적 문제였으며, 선교적 빈곤에 대한 매우 강력한 상호 요청과 기관 성직자의 의례적 법적 권리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도적 빈곤에 대한 열렬한 열망과 새롭게 태어난 사명감을 공유하지 않는 위계의 관할권에 열의를 복종해야 했습니다.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교황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무제한적인 위협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1184년에 월도는 분열주의자로 낙인찍혀 리옹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월도의 추종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짝을 지어 파견되는 복음 모토를 채택했습니다.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설교 동반자로서 동쪽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그들이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구축한 연결의 일부였습니다.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발견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야고보서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힌 사역의 실제적 사례에 따라 조직을 세웠습니다.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월도 운동에서 찾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그들의 생활 방식에 가져왔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유대감은 가난한 삶에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205년까지 이 두 그룹은 서로 제휴했지만 초점은 뚜렷이 달랐습니다. 월도는 설교에 일방적으로 집중하고 청중이 제공하는 자선을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집한 반면,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각 성인이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일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 문제는 두 그룹 간의 주요 논쟁점이었습니다.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과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에 재능을 제공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종교 재판소가 생존 수단으로 비밀을 강요했을 때, 실행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 발도파 설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 초기 수십 년 동안 라틴어 사용에 정통한 로마 가톨릭 학자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합류하여 운동에 필요한 지적 정직성과 깊은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학자의 이름은 듀랑 드 우에스카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공헌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남부 프랑스의 이단 카타르파에 대항하여 설교하는 선교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쓴 원고였습니다.

카타르파는 기독교의 이단적 분파로, 신의 본성에 대한 이원론적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서의 신이 악하고 물질적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은 본성상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 카타르파는 신약성서의 신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카타르파는 예수가 육체적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모든 육체적 존재는 본성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가 실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 체계의 의미는 Liber Antiheresis라는 논문에서 별도의 설교에서 다룰 것입니다.

듀랑은 리베르 반헤레시스에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매우 발전된 신학적 개요와 지침 세트를 제공하여 카타르파의 잘못된 믿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중을 모교회로 다시 끌어들이었습니다. 리베르 반헤레시스는 듀랑이 발도파 운동에 기여한 가장 큰 업적으로, 운동에 견고한 신학적 초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는 많은 로마 가톨릭 사제와 주교에게 카타르파 이단에 맞선 교회의 싸움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았습니다.

1206-1207년 월도가 죽은 다음 해, 듀란드 오브 우에스카는 월도의 추종자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재통합하기 위해 많은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도 운동을 모국어 가톨릭 교회와 재통합하려는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월도의 추종자들이 모국어로 공개적으로 설교하라는 고집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설교하고 번역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월도 추종자들을 파문했습니다.

듀랑 오브 우에스카와 그의 추종자 중 다수는 월도의 추종자보다 더 온건했기 때문에 로마와 타협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듀랑은 모교회와의 연합이 설교할 권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맹자 그룹은 1208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재결합했습니다.

듀랑은 잠시 동안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로마 가톨릭을 재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통합의 다리 역할을 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듀랑은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가난한 가톨릭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208년 교황청은 평신도의

인기와 기세를 가난의 서약으로 돌리고 월도의 추종자에서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으로 가난한 가톨릭의 형성을 승인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난한 가톨릭 신자들을 승인한 지 몇 년 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젊은 개종자가 가족의 부를 부인하고, 가난의 서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내에서 성직된 소명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교회 위계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더 큰 교회 내에서 가난한 가톨릭 신자들의 조직 원칙을 통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교황청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지도 하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12년에 시작된 프란치스코회는 왈도와 아놀드주의자들이 발전시킨 동일한 원칙을 많이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집단 내에서 가난, 겸손, 그리고 봉사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떠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추종자들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회 운동이 왈도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본떠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도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강조점 대부분은 자신의 경전 탐구에서 나왔지만, 프란치스코는 토스카나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왈도 운동의 메시지와 영향력이 전파되고 널리 퍼졌습니다. 그 사실과 뒤랑이 모교회로 돌아와 로마 교회 내에 가난한 가톨릭 신자들을 설립한 것은 로마 교회 내에서 예수의 고통받는 인간성과 가난을 모델로 한 공인된 교회 질서의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의 평신도 주도의 복음적 강조점을 완전히 채택하는 데 저항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 지 처음 30년 동안 널리 인기를 얻고 빠르게 확산된 복음 전도 사역이 없었다면 프란치스코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 재판관들이 폄하적으로 발도파라고 불렀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롬바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핵심 신념과 긴밀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 활동은 당시 종교 운동보다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신앙 메시지의 광범위한 영향은 로마 가톨릭이 발도파의 추종자들을 파괴하려고 한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익명이지만 잘 알고 있는 교회 심문관은 1260년대에 처음 작성된 논문에서 발도파가 교회가 직면한 모든 이단 집단 중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위계가 받아들인 이 선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에는 메시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매우 대중적인 수용, 교회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비판,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모든 신학적 신념을 고수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라틴어 대신 사람들의 언어로 단순하게 설교한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왈도가 리옹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 이내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왈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공공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ordo Praedicatorum*이라 불리는 자체 공식 조직인 말씀 선포에 헌신하는 도미니코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번째 강조점은 빈곤을 고백하는 데 전념하는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이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초의 가톨릭 교회와 왈도파 사이에는 사역의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에 접근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톨릭 교회는 도미니코회와 베네딕토회에 신의 말씀을 모국어로 선포하는 일을 할당하여 선포와 빈곤에 대한 종교적 강조를 분리했고, 프란치스코회는 빈곤에 대한 공언에 대한 종교적 강조를 채택했습니다. 발도파는 이 두 요소가 통합되어 리더십 모델에 구체화된 최초의 조직된 기독교 사역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리의 구별 덕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를 보호하고 도전받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로마 교회의 기독교 증거에 대한 맹목적인 부와 재산에 대한 충성이 가져온 위협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복음 메시지의 성실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회 설교와 빈곤의 통합된 삶을 살았던 가난한 그리스도는 교황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인기를 얻었고, 교회는 빈곤과 설교가 모두 통합된 일련의 가톨릭 교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220년대에 교황이 Ordo Praedicatorum을 조직하면서 가톨릭 설교 교단이 설립되면서 프란치스코회, 베네딕토회, 도미니코회는 빈곤 서약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제와 주교는 이러한 성스러운 교단에 헌신하지 않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의 이 세 가톨릭 교단과 발도파 운동의 제한된 영향력을 넘어 성직자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생활 방식의 성실성에 대한 통합적 강조가 나타나기까지는 300년이 더 걸렸습니다. 16세기 초 마틴 루터와 개신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에 초점을 맞춘 기원은 이 시대에 제작된 기독교 예술에서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13세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전달한 지배적인 시각적 그리스도론적 강조점은 우주의 주님으로서 부활한 그리스도, 즉 판토크라토르였습니다. 판토크라토르로서의 그리스도는 금색과 흰색 페인트로 상징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통치의 이미지로서 부활한 주님의 위대하고 승리적인 존재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창조물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은 13세기에 교회의 부와 권력에 대한 사회적, 교회적 도전에 따라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3세기 중반에 로마 교회에서 프란치스코 운동이 성장하고 부상하면서 프란치스코회는 인간성과 예수의 고통을 가톨릭 교회 내 시각 예술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바쳐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많은 예술적 해석은 인간성과 예수의 고통스러운 본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받는

예수의 이미지인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프란치스코회 운동이 로마 가톨릭교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또한 교회의 공동 예배에 대한 강조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톨릭 그리스도론에 전념하는 전례 자료와 신학 문서의 창조에서 발전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 신앙 안팎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초점을 신앙의 본질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왈도, 아놀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각각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신학적 강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교회에 도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분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급진적 구별, 빈곤의 역할입니다.